

계엄·탄핵·체포... 윤 대통령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포고령 4일 새벽 국무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검찰 특수본, 군 지휘부 신병 확보 공수처, 윤 출석 불응에 체포·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군 지휘부 명령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국회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군인이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진입하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후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의원이 4일 새벽 1시 27분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사흘만인 12월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작수를 알렸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 8일 새벽 1시30분께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홍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 특수본은 과속중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보내는 데 관여한 군 지휘부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여기에 경찰도 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조치로 경찰청장과 김복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고, 계엄 선포 전부터 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월 15일 윤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도 세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으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3차 출석요구가 불발된 지 나흘만인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고, 공조본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으나, 관저 앞 200m를 남겨둔 지점에서 육군 수방사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구축한 3차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결국 5시간여 대치 끝에 공조본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1차 영장 집행은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해 지난 7일 발부받은 뒤 2차 집행 시도를 위한 경찰과의 협조에 들어갔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하는 등 경호처 내 군열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도 이어갔다. 공수처도 협조공문을 통해 경호처에 형사처분을 경고했다.

일주일여 넘는 준비 끝에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 투입 인력을 1천명 선까지 늘려 지난 15일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조본은 저지선 돌파 전략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나 1차 시도 당시와 달리 경호처가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지 않으면서 1·2·3차 저지선은 빠르게 뚫렸다. 차벽을 위해 주차된 경호처 버스에도 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지난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 꽂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5시간 만인 오전 10시3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가량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고, 다음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수처 검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尹 “공수처엔 더 할 말 없다” 조사 불응

공수처, '20일 출석' 다시 통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공수처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 출석시켜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구속 첫날인 19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할 말 게 없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해 앞으로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우선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

시 통보한 뒤 윤 대통령이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를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1차로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침탈·폭동

▶1면에서 계속

◇극단 대립에서 법의 가치 도전으로=이날 법원 난입은 단순한 집회 과정의 폭력 양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흔히 집회 도중 대치하던 경찰과 마찰을 빚어 다수가 체포되는 경우는 한 국 정치사에서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날 흥분한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확신’에 찬 모습이었는데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이 과정에 극우성향 유튜브버들은 폭동에 가까운 폭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이를 ‘정당한 행위’, ‘법원에 대한 저항’ 등으로 표현하면서 폭력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시간 ‘일방적 논리와 주장’에만 노출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특정 논리에 확신하게 되면서 행

동이 더욱 과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부 유튜브는 이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윤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대를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지권도 ‘사법 불신사태’를 부추기고 있다. 여론은 계엄과 탄핵 과정에 ‘정권 수호’에만 집중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독재의 산물인 ‘백골단’이라는 과격 폭력 수단을 국회기자회견장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 속에서 ‘검사 탄핵’ 카드를 남발하면서 법의 신뢰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날 폭력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尹 구속에...국힘 “형평성 맞지 않아” 민주 “상식적 판단”

조국혁신당 “민주주의 회복 과정”

여야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등이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이 대표 영장 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영장은 기각했는데 사실상 영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해감마져 느낀다”고 말했다.

정경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 판단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성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당한 분노를 국민들이 모아준 덕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대통령 구속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매우 다행이기도 하다”며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책임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철거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분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태림인더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적 모범업체표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영옥(80120-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0, 308동 702호(하남동, 부영사랑으로)
- 피상속인 망 김영옥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년 1월 14일 2024년 1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추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월 20일
- 상속인 : 김현식(981204-1XXXXXX)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30, 308동 702호(하남동, 부영사랑으로)
- 신고기간 : 2025. 1. 20. ~ 2025. 4. 1.
- 채권신고처 : 법무사 강익수 광주 동구 동명로 110, 506호 (지산동, 법조타운)

동래정씨 종원총회 소집공고

참석자력 : 동래정씨 상인년중광주 전남 전라북도 주소를 두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

일 시 : 2025년 1월 24일(금) 11:00 시
TEL. (063) 237 - 2556

장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천중앙로 3 (양원빌딩 6층)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과 동래정씨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것

안 건 : 제 1호 의안 - 회원 확인에 관한 건
제 2호 의안 - 임 -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제 3호 의안 - 기타 토의안건

2025년 1월 20일
동래정씨 호남회회 회장 정재영

분실공고

- 부동산매개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 광주 북구 서양로 155번지 부동산 자이&어울림 119동 1001호
- 계약자 : 이 정 열
-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 2025년 1월 20일